민주+安신당+정의당 '新야권연대' 주목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야권 새판짜기 변수되나

'국정원 개혁' 고리 3개 세력 공조 가능성

진보당 해산땐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키로 함에 따라 향후 야권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가 청구키로 한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이다. 정부는 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경우, 진보당의 존재는 사라진다. 또 헌재가 결정을 내릴 6개월 이전이라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진보당은 사실상 정당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의 새판짜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진보당 세력의 고립 속에 '민주당+안철수 신당+정의당'간 '신(新)야권연대'라는 새로운 연대 틀을 구축할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대의 모태는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화두로 추진되고 있는 '전국적 연대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정원 개혁 문제를 고리로 이들 3개 세력 간 공조 움직임이 정치권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독자세력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안 의원 측이 전면적 연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연대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는 있다.

민주당으로선 지난해 총선 당시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당의 원내 진출을 견인한 '원죄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진보당 해산이 가시화될 경우 보수진영의 단골 공격소재였던 '친(親)종북' 이미지에서 일정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불리한 것 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박빙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야권표 분산 위험을 미미하게나마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진보당의 운명은 진보진영의 앞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노동당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종북 문제로 재결합과 결별을 반복해온 정의당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날 안철수 의원이 전날 제안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 도입 제안에 환영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며 적극 화답하는 등 정책공조를 매개로 정의당과 안 의원 측 간 거리가 좁혀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흐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정부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는 정부는 동일한 정당을 동일한 사유로 재차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여권은 무리하게 '공안정국'을 이끌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상황이 야권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은 맞지만 헌재의 결정이 미칠 파장이 너무나 커서 그 결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면서 "다만, 상황에 따라 야권 구도가 요동칠 수 있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약속살리기 위원회-원내대책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입법·예산 전쟁'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

새누리, 민생 지렛대 삼아 野 압박·설득작전 병행

민주, 박근혜 정부 공약 파기 집중 거론 기선 제압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전쟁'을 앞둔 여야가 5일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지렛대 삼아 민주당에 대한 압박과 설득 작전을 병행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파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초반부터 기선제압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제살리기 입법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활성화 관련 15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실질적 효과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적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때문에 여당 지도부는 여론전을 펼치며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는데 매우 환영할만한 제안"이라고 반기면서도 "진정성을 갖고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에 임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대대적 공세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대선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역공을 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약속살리기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박근혜정부의 민생·복지공약 파기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섰다.

위원회는 김진표 위원장을 정점으로 산하에 공약총괄조정위원회와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공약총괄조정위원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변재일 이용섭 최재천 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과 법무통이 두루 참여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약속살리기 위원회-원내대책 연석회의'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같은 정치 쟁점보다는 민생·복지분야 공약 파기와, 민주당의 민생 대책이 주로 거론됐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민생·복지에서부터 정치·경제 등 전 국정 분야에 걸쳐 90여개가 넘는 공약이 깨지고 뒤집히고 있다"면서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군 복무기간, 지역균형, 쌀 직불금 등의 주요 공약 후퇴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며 "전월세 대책, 을(乙)살리기, 경제민주화 실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대안을 입법·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된 새누리당과의 '민생'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윤석 의원 출판기념회

13일 국회의원회관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신의 저서 '꿈, 나를 이끌다'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자전적 이야기로 구성된 이 책은 이 의원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겪었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족과 인생 이야기를 담은 '사랑'편, 선거 과정과 정치 이야기를 담은 '소망'편,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감사'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사진과 함께 실린 '25년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청년시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이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25년 만에 국회의원이 된 과정을 담고 있어, 독자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 "'노인의 날' 공휴일 지정을"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5일 노인의 날(10·2)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인 613만여명으로 인구통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이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며 "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12.2%에서 2020년 15.7%를 기록한 뒤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20% 이상)'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노인의 날 국가 공휴일 지정 추진은 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새기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의원 오늘 검찰 출석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는다.

문 의원의 변호인은 5일 문 의원이 6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문 의원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

문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날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미 참여정부 관계자들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 의원 조사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의 최종 확인 절차라는 해석이 많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 (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중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세하동공장 대지1,499㎡,건평234㎡ 6억8천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5천),직영 월천만수입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신창동 전(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
* 세하동 답(자연녹지) 5,500㎡ 매6억6천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해보면 2차선도로변 답 1,245㎡ 매9천5백만
기타
* 광산구 본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업 잘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원룸·다세대적합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대인동 소방도접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금남로 5가에 있음 9억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등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 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함 17억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읍 비행장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증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라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1억29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나대지나 상가 부지와 교환도 가능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초.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나주시 남내동 2종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